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성공 비법 공유

### 전주시, 온라인 시장 진출 공금증 해소·디지털 전환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제3회 소담콘서트' 개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만나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공금증을 나누고, 성공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16일 전주대사습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북특별자치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공금증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소담콘서트'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MBC가 주관하는 이번 '소담콘서트'는 올해로 3회차를 맞아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성공 사례를 주제로 각자의 전략과 비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전주시는 16일 전주대사습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북특별자치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공금증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소담콘서트'를 개최했다.

자가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인 '담근'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라인 매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광고 활용 마케팅 방법을 소개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먼저 황은송(썬) 담근 광고 사업주 커뮤니티에 소개

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군산원예농협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성과와 바이럴 마케팅 방법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양봉농가와 협업한 꿀 전문 브랜드 '위키비' △3대째 60년 전통 국밥을 말기트로 개발

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신가네정음국밥'의 온라인진출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력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종합 지원 인프라 시설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운영하고 있다.

'소담스퀘어 전주'는 개소 이래 연간 700개사의 1500여 개 제품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활용·송출 지원 △온·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시장 개척에 힘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디지털커머스 전문가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호(재)전주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청년프로젝트 기획단 소속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주 청년의날 기념행사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

## 전주지역 청년들, 장학금 기부

###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스팟' 운영 수익금 전달

전주지역 청년들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 수익금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전주시는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호(재)전주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청년프로젝트 기획단 소속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주 청년의날 기념행사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지역 청년들은 '청년스팟' 행사 운영 수익금 217만 원 전액을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재)전주시인재육성재단에 기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전주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 청년의날 기념행사 '청년스팟'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행사가 청년이 주인공인 행사인 만큼 지역 청년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전주지역 저경력 청년 19명

으로 '청년프로젝트 기획단'을 구성하고, 4개월 동안 이 행사를 함께 기획·제작해왔다.

그 결과 청년프로젝트 기획단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기획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수익금을 기부하며 나눔도 실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참석한 청년프로젝트 기획단 청년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청년들의 선정을 격려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관과 청년이, 청년과 청년이 함께 소통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과 청소년에게는 도움이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유망 창업가 발굴·성장 지원

###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주시와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는 오는 30일까지 스타트업 성장지원(예비) 프로그램인 '오렌지가든 하반기'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오렌지가든 프로그램은 예비 단계의 창업가 총 5팀을 선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 진입에 대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는 기존 창업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선발 요건

에 업력 관련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에 대한 대표자의 열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 가능성이 있는 유망 창업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은 △실질적인 사업계획(실증 및 개선이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 보유 △최소한의 팀 빌딩(2인 이상) 필요 △지역거주자이어야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

교육&워크숍(4회) △1:1 비즈니스 전문가 코칭(7회) △상시 면담으로 구성돼 지역의 예비 창업가들이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마케팅 시장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과 검증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되며, 선발된 팀에게는 △성장 프로그램 지원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입주(6개월) △사업화 자금 지원(재)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동반성장 기금 지원) △제휴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대한민국 우수도서관 선정

책의 도시 전주의 대표 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대한민국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2만 2000여 곳을 대상으로 △도서관 경영 △정보지원 △시설환경 △도서관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소관 부처와 시·도, 시·도

교육청, 관련 단체 등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48개 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이번 심사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해 인문대학 교수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인문학 지식나눔 열린강좌' 운영 △시민들이 릴레이로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시민 참여형

큐레이션 전시' 및 동네 책방지기가 추천하는 '주제별 추천도서 전시' 등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 전용 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 1216'의 경우 콘텐츠 개발 과정 및 방법,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하면서 새로운 공공도서관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욱기 기자

### 전주한옥마을역사관, 옛 사진으로 만나는 조선왕조 분향 전주

옛 사진을 통해 조선왕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옛 사진으로 보는 조선왕실의 유적지: 오목대, 이목대, 경기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주 이씨 선조들이 살았던 '이목대(梨木臺)', 태조 이성계가 대종가를 읊었던 '오목대(梧木臺)' △근현대시기 오목대의 옛 모습과 풍경 △태조어진을 봉안한 진전(眞殿): 경기전(慶基殿) 등 전주가 조선왕실의 분향임을 보여주는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경기전과 오목대, 근현대시기 오목대를 배경으로 한 전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옛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주한옥마을역사관에서는 특별전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전시 연계 무료 체험프로그램인 '한옥빛을 담은 무드등 만들기'도 운영된다.

이번 특별전은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